

스스로

다스리다

서로

북돋우다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

문화자치와 상생발전

2022. 5. 12. (목)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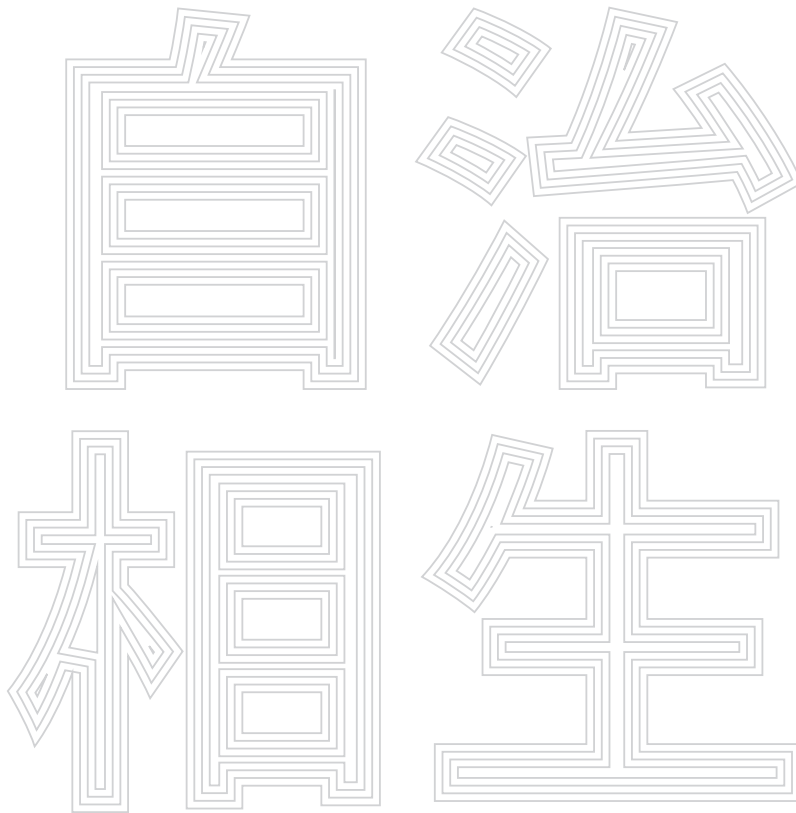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방커

| 공동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

문화자치와 상생발전



2022. 5. 12. (목) 14:00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방커

<프로그램 시간표>

사회자 | 황순주(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구분	시간	내용
등록	13:30-14:00	■ 참석자 등록 - 참석자 등록, 명찰, 자료집
소개	14:00-14:1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참석자 소개 - 환영사, 축사
기조발제	14:10-14:30	■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14:30-14:40	■ 주제발표 1.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14:40-14:50	■ 주제발표 2. 일상 속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확대를 위한 전환적 사고 김진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14:50-15:00	■ 주제발표 3.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 김성수(경기민예총 사무처장)
	15:10-15:20	■ 주제발표 4. 문화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경기도 소홍삼(의정부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15:20-15:30	■ 주제발표 5.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김기섭(경기도박물관장)
휴식/정리	15:30-15:35	장내 정리
종합토론	15:35-16:00	■ 종합토론 [좌장] 제갈 현(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제안서낭독	16:10	■ 제안서 낭독 - 경기도 문화예술단체 대표
사진촬영	16:20	■ 사진촬영 및 마무리

목 차

CONTENTS

사회자 | 황순주(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기조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초 5 김성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1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 21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주제발표2	일상 속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확대를 위한 전환적 사고 29 김진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주제발표3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 37 김성수(경기민예총 사무처장)
주제발표4	문화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경기도 43 소홍삼(의정부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주제발표5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49 김기섭(경기도 박물관장)
종합토론	참석자 종합토론 65 [좌장] 제갈 현(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제안서 낭독	경기도 문화예술단체 대표 73

기조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도 문화정책 기조

2022.5.12

김성하 연구위원(경기연구원)

1. 전환 (Paradigm shift)

2. 국가 문화정책 흐름

3. 경기도 문화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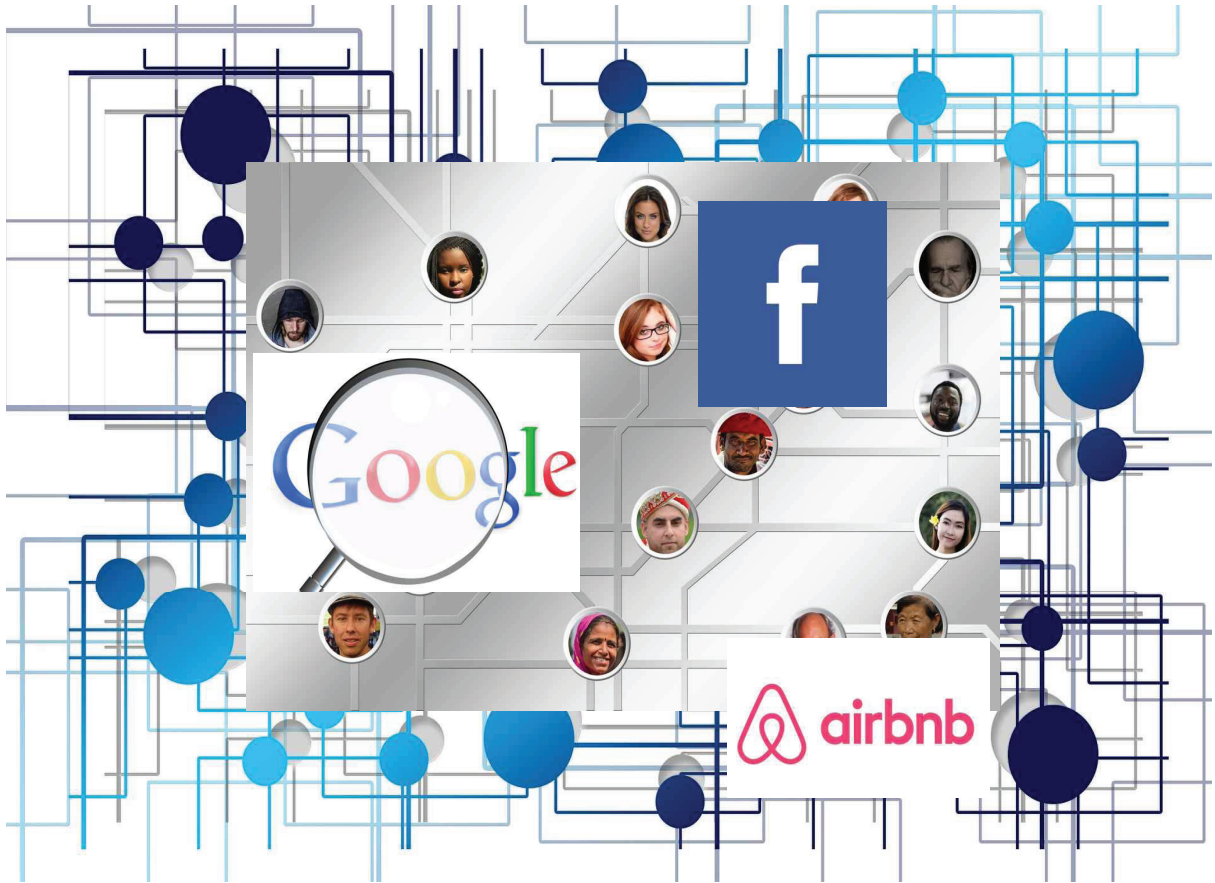


1. 전환 (Paradigm shift)



이세돌vs알파고 인공지능과의 대결, 왜 관심일까? (티스토리, <http://xaxo.tistory.com/264>)

사이버물리 기술을 활용, 생산의 저비용·고효율이 극대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 대두
- 2020년까지 사무행정직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510만개의 일자리 감소 예측(WEF(2016))



[산업경제적 가치, 정보, 기술 ≤ 문화, 창의, 감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사회 필요 역량 (미래창조과학부·KISTEP·KAIST, 2017)

[지식형 인간]

이성중심주의
지식정보습득축적

20C

2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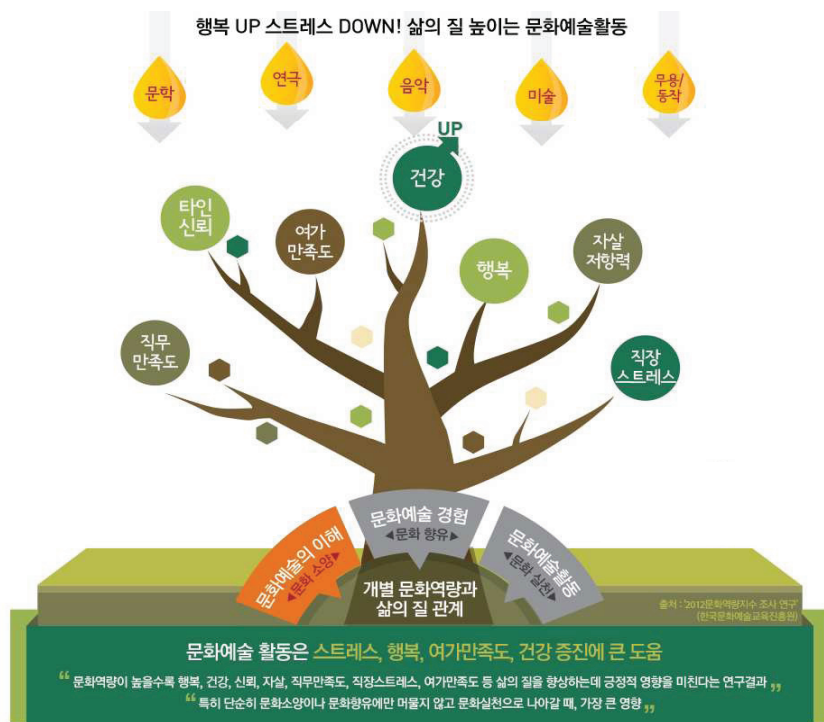
[창의융합형 인간]

- 창의성+감성 • 지식정보활용
-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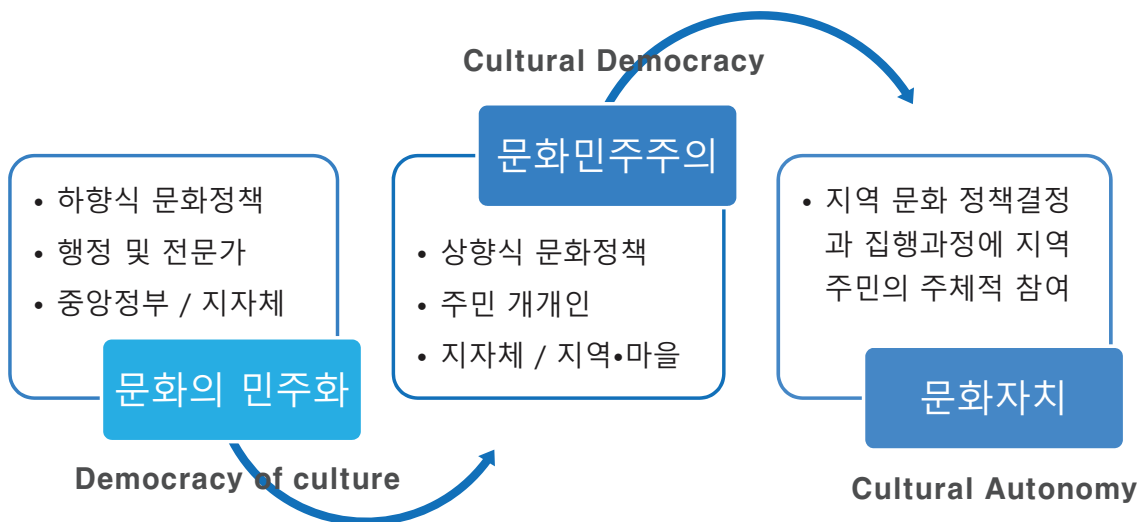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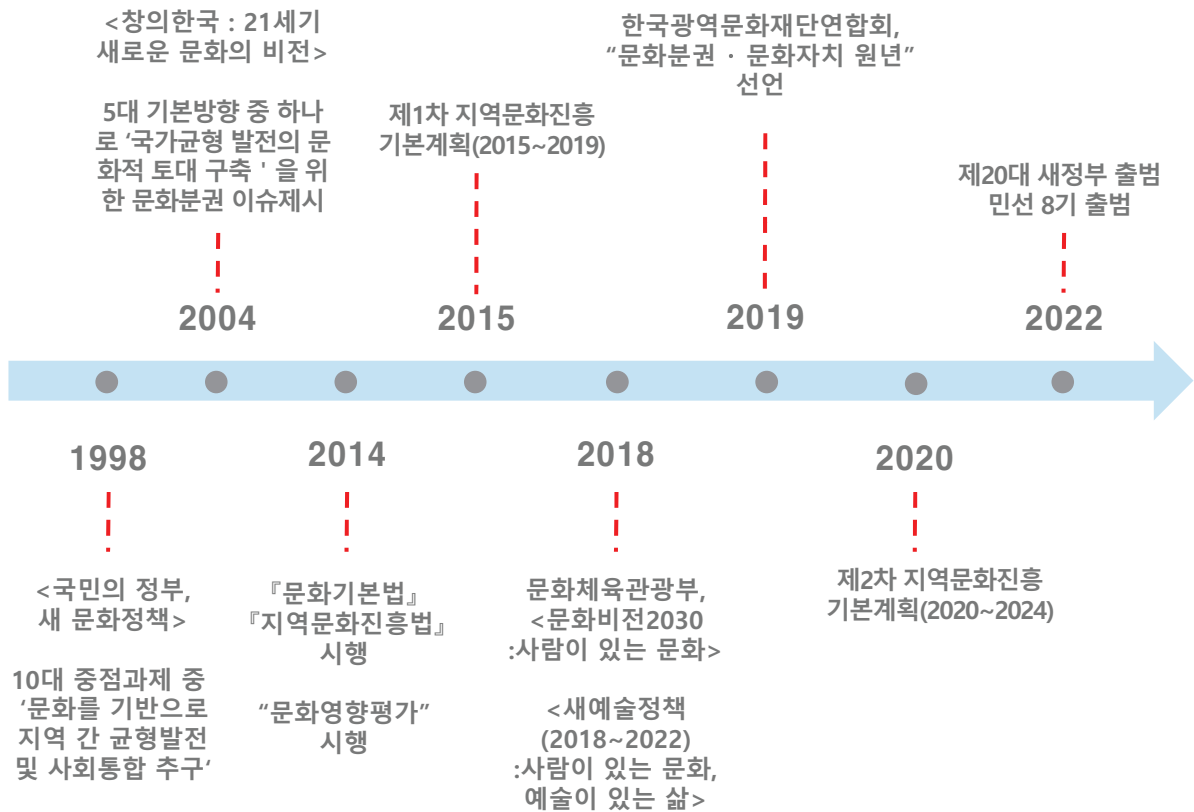
현대인의 스트레스,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로 해소 (Healing)

“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동작(무용)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은 삶에 대한 열정 및 활력 증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높여주는 신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국가 문화정책 흐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2022.5.3)

- ◆ 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110대 과제
- ◆ 국정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과제명		주요내용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권 보장 -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전통문화산업 육성·한국어 확산 - 지역문화 균형발전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 장애예술 활성화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 기반조성 - K-콘텐츠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 - K-콘텐츠로 신시장 주도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교육 -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접근권 -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체제 도입 - 문화재 규제 개선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3. 경기도 문화정책 기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2020~2024)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2020~2024]

비전

- 도민이 있는 문화,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가치

- 자치 :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
- 공정 : 정당한 보상이 있는 문화
- 향유 : 누구나 누리는 문화

목표

-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2020년)
-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전략 및 핵심과제

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환경 조성	①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② 도민 문화향유 확대기반 마련 ③ 문화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으로 도민행복 증진	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② 예술인 지원(문화예술인 창작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③ 문화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구현
3.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① 생활문화 시설 확충 및 활성화 ② 문화기반시설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③ 문화적 지역재생 활력 증진
4.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해 더불어 즐겁게	①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경기도 위상 강화 ②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활용 ③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으로 경기도 정체성 형성
5. 창조적 지역 콘텐츠, 관광산업 육성	① 경기도 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마련 ②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뉴노멀 마련	경기도형 문화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마련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2021. 7.14)

◆ 경기도 문화정책 기본원칙 반영

-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마련, 문화격차 해소 등 포함

◆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 5년마다 수립,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같음
- 시군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특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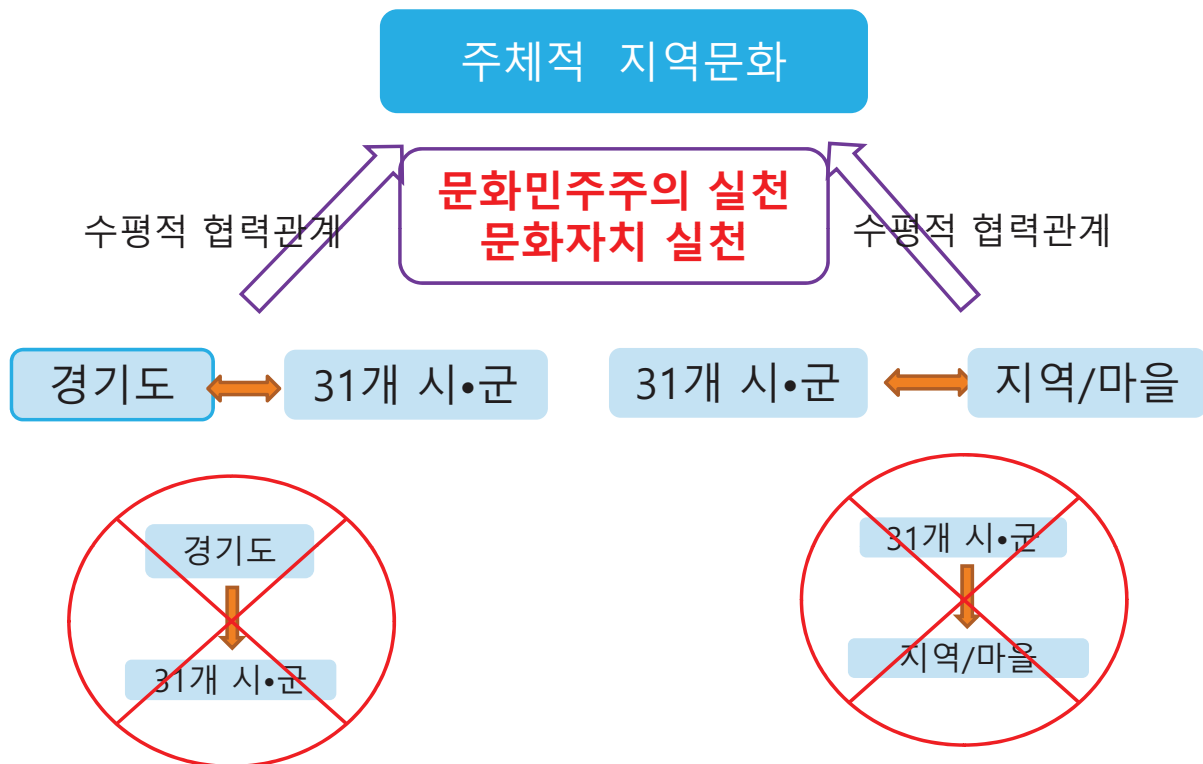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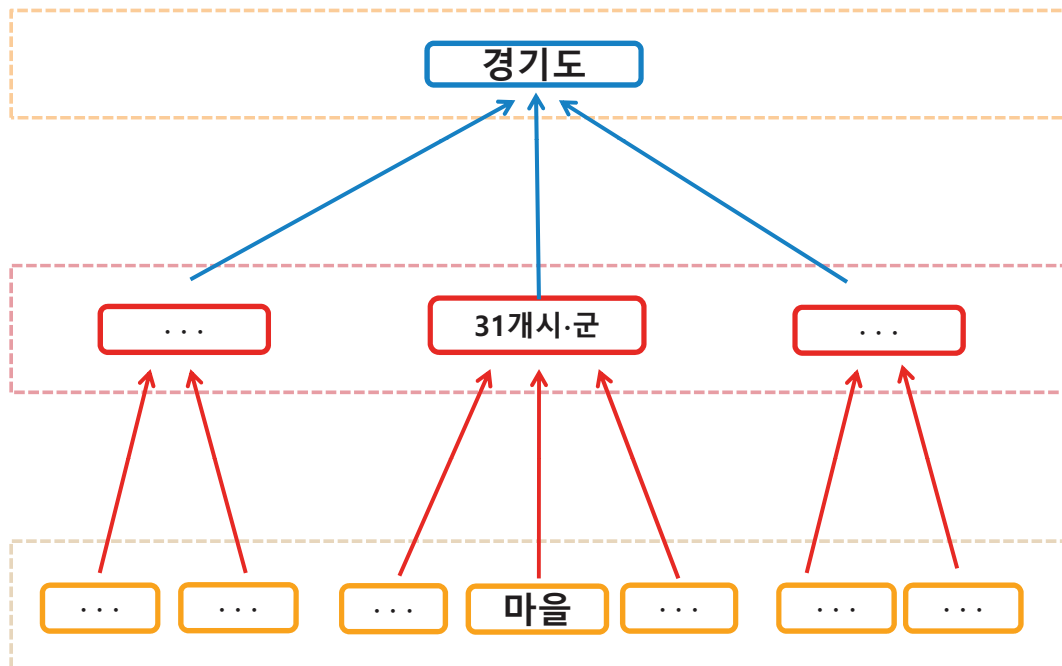
◆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서 기능 수행
- 문화자치 기본계획 등 도 문화정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 다양한 문화주체의 정책참여보장, 협의체 제안내용의 적극적 정책 반영

상향식 문화정책 체계 전환 요구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
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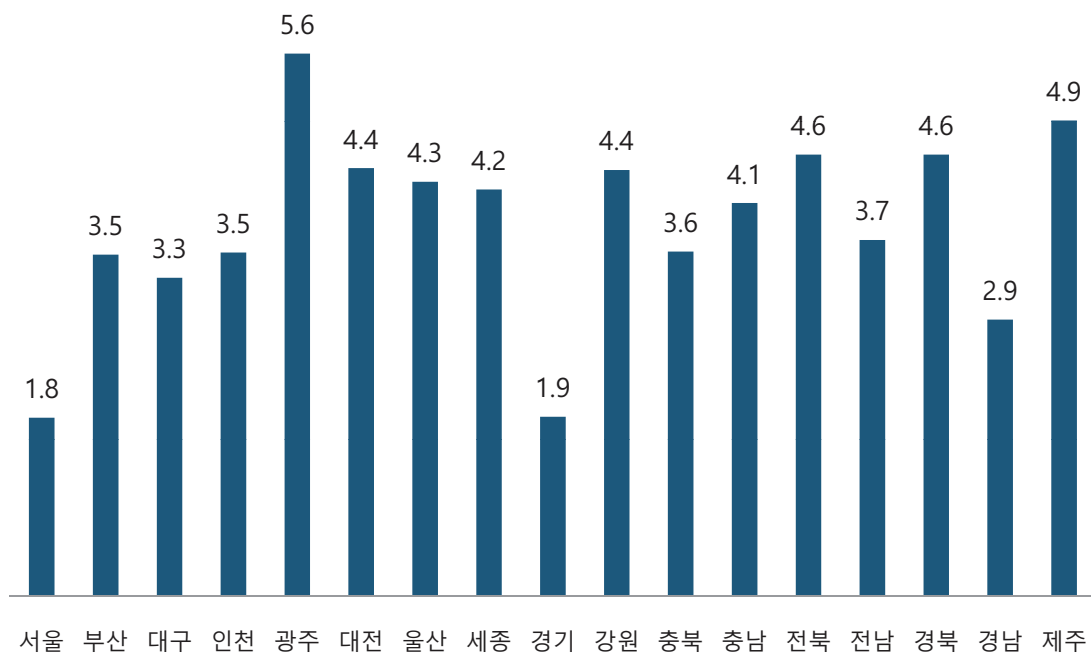
문화로 품격있는
경기도민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

문화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경기도

주체적 지역문화 구축

2022년 예산 문화 및 관광 예산비율



감사합니다.



주제발표1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1. 들어가며

제게 부여된 주제는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안과 그것을 위한 경기도 지역문화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개념이 진리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대안은 달라집니다.

앞선 기초발제를 통해 시대를 어떻게 읽어내고, 그것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개괄을 해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었다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분권 문화자치를 언급해주셨습니다.

문화정책차원에서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향유’를,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참여’를 강조했고, 중심에서 ‘탈중심’으로의 전환을 말하면서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창의적 활동에 근거한 사업들이 중앙단위에서 기획되고 지자체로 뿌려지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역분권, 문화자치’라고 얘기하는 정책적 흐름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시민들의 주체적 ‘문화참여’를 넘어 ‘참여와 협력 그리고 연대’가 문화자치, 지역분권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때문에 중앙집권국가구조라는 패러다임에서 지역자립, 자치분권, 문화자치라는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것을 위해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요?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본 발표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상설운영기반 조성 및 활성화

결론을 말하자면,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법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다만 본 법 규정에는 시·군 지자체 문화협력위원회 구성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7월 14일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합니다. 그 조례를 통해 문화권을 보장받은 문화주체가 ‘문화자치’를 할 것임을 선언하고, 도지사는 시·군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문화예술육성과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 경기도 문화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한 <문화협력위원회>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의거한 <경기도문화정책협의체>가 상설적으로 운영, 활성화하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배정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31개 각 지자체에 <지역문화자치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근거한 <지역문화정책협의체>가 상설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 활성화하도록 도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합니다)를 가진 주민, 시민, 도민들, 즉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주체>들에 의해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 가능하도록 그 기반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문화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법은 저 앞서가 있는데, 행정과 문화기관 그리고 현장은 한참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해 선출된 도지사와 도의원에 의해 마련된 규정과 규칙인데, 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져야 합니다.

<p>제14조(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조의2 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 위원회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1조에 따른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제22조에 따른 도 문화정책협의체의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도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4. 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향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상장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미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8.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협력과 연대의 구조 만들기

문제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합리적, 객관적, 보편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욕망과 이익의 배분문제로 다툼의 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에 과연 지역은 성숙되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담겨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광역을 포함한 기초문화재단과 지역문화원을 포함한 문화기관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단과 문화기관단체는 필요에 의해 지역에 설립되었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합니다. 문제는 각 기관단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문화자원아카이브 영역 관련해서 문화도시사업 영역에 포함되어 그동안 지역문화원이 몇 십 년간 추진해 온 지역학 영역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합니다. 지역아카이브 영역에 도서관 사업 부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역문화원, 문화도시사업추진단, 도서관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자원아카이브에 대한 우선권 또는 추진협력과 연대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지역문화원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도시, 도서관 영역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각 영역에서 잘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그 성과를 어떻게 상호 보완 공유할 수 있는가를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문화도시에 지역문화자원을 배제하고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역문화원과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대결구도가 아닌 협력과 연대구조를 만들어 각자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하는 방법 찾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반복되지만 그것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지원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하드웨어 설치(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보다는 기존 시설(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들이 상호 소통, 협력과 연대 구조 마련을 위한 광역단위 허브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 구조에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아젠다 도출과 합의창구가 되도록 하며, 경기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현황과 사업추진성과 등의 아카이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협력과 연대를 통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은 세금으로 집행됩니다. 때문에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協力)은 한자로 력(力)자가 네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실패가 보장되는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실패의 경험이 향후 지역문화발전의 토대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사례를 잘 정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지원, 그 ‘실패의 경험을 잘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문화정책의 조율, 의견수렴, 종합, 대안 마련을 위한 문화전문가가 배정되어 광역, 지역 간 일관된 문화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세계체제, 즉 도시화, 세계금융화, 지구화(세계화)로 대표되는 현대세계체제가 코로나라는 단 하나의 바이러스로 무너진 것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람과 돈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역보다는 세계화를 강조했던 패러다임에서 바이러스는 국가 간 이동을 단절했고, 사람과의 밀접한 만남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습니다.

필요생산, 적정소비, 재생이라는 대안적 사고가 필요했고, 세계나 국가보다는 로컬 중심의 대안 세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역’을 문화적으로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정답들을 조율, 의견수렴, 종합을 통한 ‘최초의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합의’는 ‘힘’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출한 ‘최초의 합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경기도의 ‘힘’과 ‘저력’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넷째, 지자체 문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 지역문화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율성 확대가 정책단위에서 선언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예산집행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공기관 직접사업의 과감한 지역기관단체에의 이양(기획, 추진 등의 전면적 이양)이 이루어져 자발적, 창의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4. 지역특성화를 위한 지역에서의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초발제를 통해 지역분권, 문화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모든 지역은 특별하다’를 모토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이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몇 가지 전제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좋은 지역이 아닌, ~때문에 좋은 지역’이라는 전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규모가 아닌 광역단위(경기지역)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도로 ‘문화도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는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간의 경쟁에 머물지 않고, 지역 내 미시적 차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전제입니다.

둘째, 다양성의 보장입니다. 1980년대 한국사회의 성격을 ‘비합리적 아비투스’로 구성된 연고주의 네트워크’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구성된 다양성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을 문화소비의 공간이 아닌 문화적 생산과 재생의 ‘장소성’의 회복입니다.

넷째, 위의 전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에 준비되고, 그것의 실현이 ‘모든 지역을 특별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지역은 경기도 31개 시, 군지역의 특성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 찾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경기도 정체성’을 기대해봅니다.

이에 따른 문화재정 확충 문제도 언급해야겠지만, 기초발제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하위에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5. 마치며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은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자치는 문화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이디어가 아닌 ‘구도의 힘’에 의해 저절로 완성되는 경기도문화정책흐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주 자운서원의 울곡 이이는 ‘북기초’ 즉,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이 되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력’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가꾸는 문화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처음이 되는 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민선8기를 통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제발표2

일상 속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확대를 위한 전환적 사고

김진희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일상 속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확대를 위한 전환적 사고

- 민선 8기 경기도 문화정책 과제(안) 2-4, 2-5의 행간 읽기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김진희

문화시민의 품격, 우아함(elegance)이란?

더 나은 진전된 삶의 방식이며, 이 방식은 곧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 존 말코비치

「경기도 문화정책과제 (안)」

- 정책과제2-4. 문화예술거점 확대
 - ⇒ 가깝고 쉽게 만나는 **15분 생활권** 시민문화공간 확충
 - 민선7기 150개 → 민선8기 300개 확충
- 정책과제2-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 내 삶을 아름답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실현
 - 기초 31개 시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 경기도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1. 질문의 방향 비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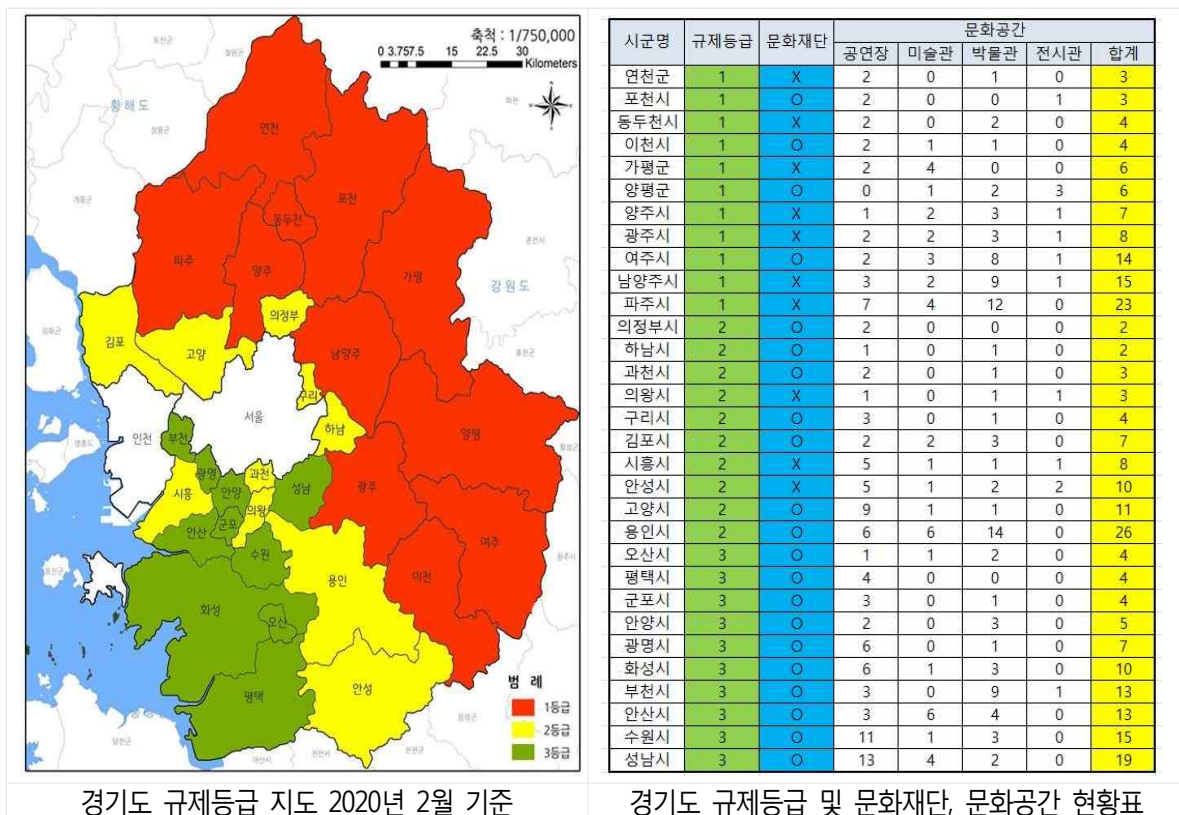
경기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취향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즉 질문의 방향비틀기가 요구된다.

「질문1」 민선 8기 경기도 문화정책과제(안) 2-4. 가깝고 쉽게 만나는 15분 생활권 시민문화공간 확충과 성과목표 2배수 거점 확충. 이 과제는 왜 설정되었으며, 꼭 필요한가?

경기도의 문화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31개 시·군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문화권과 그와 상반되게 인구소멸과 노후화로 인구규모가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명확하게 나뉜다. 가깝고 쉽게 만나는 15분 생활권이란 의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생기며, 어림잡아 약 50% 내외로 정책소외지역이 나타난다.

□ 경기도 규제지도 및 문화자원 현황

- 경기도의 각종 중복규제(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와 문화자원 격차에 따른 지역별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역차별이 초래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도 낙후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자원 필요



경기도 규제등급 지도 2020년 2월 기준

경기도 규제등급 및 문화재단, 문화공간 현황표

인접성과 선택의 다양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본 정책과제에 대한 좀 더 고도화되고 섬세한 제안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모든 정책 목표와 과제들은 최선과 최상의 어휘로 “하나마나한 구호”에 그치거나, 단어만 대체할 뿐 “또 그 소리”의 반복재생, 그리고 전략적 과시행정의 수치 나열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현안을 반영한 실용적 해법이 담긴 정책제안이 문화예술현장에 실질적이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민선8기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 소주제를 문화(예술)거점공간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한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지점과 관련하여 과제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일차원적 질문** : 도내에 몇 개의 공간이 있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 **미래지향적 가치질문** : 공간조성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당신의 일상에 무엇이 변화되는가?

기실, 이제는 지역 곳곳에 마을회관, 주민센터, 생활문화센터, 문화재생공간(경기에코뮤지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의 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제법 다양하게 나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모두에게 열려 있으되,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문화예술거점공간이 꽤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문화 소비자(시민, 예술가, 활동가 등)의 입장에서 선택가능지는 때때로 모호하고 혼돈스럽기 일쑤이다.

정책입안자 입장에선 지역별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정책성과를 측정하기는 간단하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에 충실하여 이 모든 곳이 “기능적”으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불리 대답하기 난감하다. 대표적 예로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경기상상캠퍼스)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예로 들겠다. 공간의 흥망성쇠는 그곳의 지킴이들이 결정한다. 지킴이들은 이곳을 이용하고 찾는 시민이기도 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운영자이기도 한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찾는 이(시민, 활동가, 예술가, 교육강사)들은 지속되는 반면, 기관운영 실무자들은 12개월 미만의 임시기간제가 태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규인력들은 전문성을 쌓아보기도 전에 순환보직제로 이동되어 단속적인 행정과 관리로만 머물기 마련이다.

10여 년이 넘도록 운영인력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지역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가끔 수면위로 적극 떠올랐다 하더라도 중심담론이 되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리고, 논지가 희석되고 방치되어 왔다.

문재인정부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천명하고 삶의 중심에서 문화예술을 외쳤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정책의 기둥인 사람이 밀려나고, 기간제 계약직으로 소중한 인재들의 분야 전문성이 소모되는 현실이니... 시민문화공간을 150개에서 300개로 만든다 한들 협치와 소통에 이어 확장의 공론장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

바야흐로 무엇이 먼저인지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하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시대가 도래했다. 더불어, 상처투성이인 현대인들의 아픈 영혼에 대한 회복탄력성도 화두다. 독창적인 실험과 외국의 그것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시도와 다채로운 문화정책,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지난 이십여 년 간 꽤 많이 해 왔고, 찾아보면 사례도 다양하다.

이제부터는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의 혁신과 지원체계의 현실적 방안에 대한 제고가 절실하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불안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는 문화정책이 가능하리라 본다.

2. 정보의 파고에 대한 현명하고 정교한 정책 큐레이션

예산과 정책은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경기도, 문화재단 등 문화행정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정작 정책의 제일 마지막 선봉장에 서 있는 예술인이나 문화기획자, 지역활동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세금으로 문화향유를 되돌려 받는 시민들은 생활문화, 예술교육, 평생교육 등에 대한 구분이 불필요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정책을 설계하고 기획하여 실행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혼용되는 여러 개념에 대한 정리정돈이 지금부터라도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기관 간 혹은 기관내부에도 중복사업의 축소와 조정에 대한 인식과 개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전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넘어야 할 실질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도내 광역기관 중에서 주민참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8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환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정담회를 최초로 가졌다. 유사한 사업 간의 협력과 연대,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홍보를 위한 모임으로 광역기관들의 정책연대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 소통의 첫 자리였다.

3. 독자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자원 안정화와 지원체계 제도화

「질문2」기초 31개 시·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현실적인 방안인가?

이러한 정책과제에 함의된 의미는 모든 시민에게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취지겠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거점화 하고, 인근지역까지 포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활문화와 달리 예술교육은 전문영역과 그 특수성이 존재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역 중심을 거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 그대로 “지원센터”의 기능은 [정책설계와 지원]이므로 소 인구 인근지역을 포괄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치인들은 무조건 자기 지역구에 거점이건 센터건 깃발 세우듯 기관과 예산을 유치하고자 하는 맹목적 의지가 있기 마련이지만, 문화정책은 태생적으로 줄세우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당부하고 싶다.

실제로, 지원센터가 없다고 해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다. 주민센

터에서 마을회관에서, 마을 자치회, 자원봉사지원센터,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더 넓게는 문예회관과 문화재단에서 예술교육은 이미 곳곳에서 활발하다.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몰 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 말고, 더 수준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고 스스로없이 구분지어 말하는 관계자들, 심의위원들, 심지어 예술강사들도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 더 나은 저거...라고들 막연한 선입견으로 폄훼하곤 하지만, 이미 우리 주변과 시민들의 문화수준과 잠재력은 생각보다 더 높게 상향조정되어 있다고 본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여행과 미디어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시민들의 교육열과 문화적 욕구는 어쩌면 정책입안자들보다 훨씬 더 멀리 앞서 가 있을 거라 감히 자신한다.

문화재단의 중간관리자나 임원들의 연령대에서 요즘 흔히 말해지는 MZ세대는 거의 없다. 현실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기성세대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당면해 있으나, 그것을 자유자재로 숨쉬듯 당연하게 다루는 데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감히 이 자리에서 전환과 혁신을 말해도 되는 걸까? 미래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제대로 반영한 문화정책을 내가 상상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된다.

삶의 경륜이 사고력의 깊이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은 엠지 세대에 이어 알파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의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더 분명하다. 자기주도 학습, 무형식의 배움(unlearning)의 방법론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미 먼저 태어나 후세를 가르치던 <선생님> 세상은 전복되고 있다.

경기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3곳이며, 군포에서 현재 조례제정과 센터 지정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총 17개 시도 광역지원센터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정책연대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1~2년 단위로 담당부서장과 실무자가 바뀌면서 정책력에 힘을 쏟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4. 경기도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1980년대 포스트모던의 도래로 <해체>라는 개념이 동시대예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최근엔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진전되어 온 시점이다.

「질문3」 경기도 중심의 통합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다소 시대에 뒤늦은 상투적 표현이 아닌가?

하루가 다르게 신생 플랫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인스턴트한 네트워크와 느슨한 연대로 파도처럼 쓸려가고 밀려오는 변화의 오늘이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도약과 상상이 필요한데 아닐까? 지역 고유의 문화는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성을 특화하는 것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 중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국가차원의 보편적 정책방향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역센터가 존치하는 것이다. 근래의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명분으로 예산권한은 나눠주지 않은 채 <지방이양>이라며 책임만 떠넘기는 모양새인데, 정책은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상호 존중하며 나눠주어야 옳다.

가장 최전방에서 전문가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의 성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대상별로 커리큘럼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서, 현장에서는 회의적이라고들 한다. 커리큘럼화라는 것이 결국 틀과 체계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와 예술의 본질은 더 변방으로 치닫고, 희소가치를 발굴하고 추구하며, 멈춤 없이 변모하는 생물과도 같아 눈에 선명히 보이지도 내 손에 확 잡히지도 않는 법이다.

삶이 지속되는 한,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전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필립 포레스트

앞서 제시된 과제들을 곱씹어 보면서 고민을 거듭하게 되는 시간이다. 정책과제의 선명성과 구체성을 다시 숙고해 보면서 변경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변경안)

-정책과제 2-4. 문화공간의 인접성 향상과 당사자 취향의 다양화 존중

⇒ **시민 문화공간의 다양한 선택지, 31개 시·군내 분포도와 수요분석에 따른 구체적 목표달성 OO % 제안**

-정책과제 2-5. 필사적 “지탱”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큐레이션

⇒ **제로섬(zero-sum)에서 다시 일어서는 “시민력”**

: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되살려야 하는가? 삶의 균형감과 회복탄력성

★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디지털 혁명시대에 무분별하게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주제발표3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



정책목표 3)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

□ 정책과제 06. 예술인은 공공재! 예술인 직접지원 및 사회적 참여 확대 - 예술인 창작수당,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확대

● 예술인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예술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 혹은 민간의 자율에만 방임해두면 예술의 발전과 융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이다.

1

1. 예술인 직접지원 확대

1) 경기도 예술인 현황과 직접지원 현황

- 경기도 조례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 (2021.08.10. 제정)
 - 2022 도:시·군 5:5 매칭 5개 시·군 시범실시
 - 성남(1,924), 의왕(317), 여주(114), 동두천(83), 연천(34) 총 2,472명(2015.5.2.기준)
 - 연간 1,000천원 지역화폐 지급
 - 경기도 예술활동 증명 누적완료자
 - 2021. 4. 11기준 23,834명
 - 2021. 5. 27기준 24,255명
 - 2021. 6. 29기준 26,098명
-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의 통과 이후 심사신청 건수 지속 증가

2) 예술인 직접지원 확대의 필요성

- 기존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 : 예술인을 대상화, 시혜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주도형 정책
(‘예술프로젝트 공모’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 ‘창작준비금’, ‘예술인파견 지원 사업’, ‘문화예술분야 뉴딜일자리’,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 ‘예술인고용보험’ 등)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예술인창작수당지급조례를 31개 시군에 보편화 하며, 한편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조례]로의 개정을 통한 전문예술인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해야 함.
-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정주권 함양과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 자존감 제고 및 양질의 예술인력 서울 유출 방지
- 예술인들의 사회적 소득 안정적 지원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적, 창조적 예술활동 질적 제고

2

2. 예술인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1) 문화예술 관련 공간 및 시설 민간위탁

- 지역예술인 일자리 창출
- 전문성에 바탕한 위탁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대로 그 수혜는 경기도민에게 돌아감
- 지역문화재단 위탁으로 인한 한계 극복 : 정수제한으로 인한 계약직, 비정규직 직원 양산
 - 위탁대상 시설 : 야외공연장, 문화예술교육센터, 공공예술창작소, 청년예술창작소 등

2) 예술인 파견 지원

- 플랫폼을 통하여 예술인을 기업·기관·마을에 파견하고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 간 협업프로젝트 추진으로 다양한 직무영역 개발
 - 사례 : 전북예술나비

3

□ 정책과제 07. 예술인이 정주하는 예술도시 조성

예술도시 필수 인프라 : 랜드마크 · 문화적 경관 · 예술인주거 · 예술인프라
개발이익의 일정한 부분을 문화예술에 재투자 :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장르별 조성
: 연습공간, 창작스튜디오 전시·예술거리, 광장, 마을박물관 조성 등

4

1. 예술인 주거 - 예술인 임대주택

- 예술인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조성,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입주 예술인들간 교류와 소통을 꾀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례1. 관악구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예술인주택)

- 최초계약 2년 (요건 유지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 월임대료에서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낮출수 있음 (이 경우 전환이율 6.7%)

구분	공급호수	전용면적 (m ²)	발코니 확장(m ²)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악구 법원단지5길34 에코리움빌	201호 (1세대)	31.08	3.00	17,100,000	222,700	28,500,000	371,200

사례2. 안산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

- 1983년 결성된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연 예술 활성화 및 개인의 예술적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 1985년 건축 당시 1,485세대 중 문학, 방송,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약 800세대 예술인이 입주 ('09년 기준 100여 세대)
- 안산 공단을 배후에 둔 도시임을 감안, 반월공업단지와 재매결연을 맺어 거주 예술인들의 현장 방문 연주 등 노동자와 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 됨

5

2. 도심형 창작공간 구축

- 시·군 단위별로 예술인들의 삶과 주민의 삶이 교차되는 생활공간에 창작공간 확대(공공미술창작소 등)

사례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예술마을

- 1998년 정부나 특정 단체가 아닌 문화계 인사들이 문화와 예술을 위해 자발적으로 미술가, 조각가 등 38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마을 조성
- 2001년부터 실질적 운영을 통해 황무지와 갇던 헤이리에 건물이 들어서며 2009년 12월 문화지구로 지정, 전시 관련 업종과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시작(대한민국에서 3번째 문화지구 지정)
- 문화지구지정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서점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이 이루어지며, 개인이 헤이리 땅을 취득 시 절반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함

사례2. 성남시 공공예술창작소, 청년미술창작소

- 성남문화재단에서 태평동, 신흥동 2곳에 공공예술창작소, 신흥동 1곳에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 입주예술인들은 주민참여 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 입주자 중 기획자 1명을 필수 배치
- 입주예술인들에게 생계비 및 프로젝트 지원금 지원

- 예술창작센터 : 도 단위 예술인 창작, 커뮤니티 공간 권역별 조성을 시작으로 각 시·군 단위로 확대

- 현재 경기도내 예술창작센터는 경기창작센터와 경기상상캠퍼스 2곳임.
- 따라서 긴급하게 경기북구, 동부권에 권역별 창작센터 추가 조성 요망
- 시·군 단위 예술창작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기지 구축

6

3. 예술인 복지센터 조성 등

- 조성목적 :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열악한 창작여건과 생활 실태 개선
- 주요사업 : 예술인복지사업의 모델개발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을 통한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창작 환경 조성 활성화
- 운영방법 :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센터(하드웨어) 구축
- 운영사례 :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전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경남예술인복지센터(사무실, 커뮤니티공간, 상담실, 전시공간)

주요사업 : 예술인파견지원, 유희공간 창작공간 구축, 성폭력예방,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빙, 예술인컨설팅, 의료서비스 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고용보험, 예술활동증명 지원 등

※ 현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예술인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술인상담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예술인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지원,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네트워크	아카데미, 경기청년관(청년예술축제)

과제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예술인파견지원, 아카이브,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 예술인 네트워크와 교류 등 예술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필요.

과제2. 예술인복지센터(지원센터)의 거점별, 시·군별 확대 필요

주제발표4

문화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경기도

소홍삼 (의정부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정책목표 4) 문화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경기도

소홍삼(의정부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 정책과제 08. <경기도 문화도시 31>

“경기도 모든 지역이 저마다 고유한 예술의 발상지가 되게 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공동체 육성”

1

▷ 예술은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

- 예술은 ‘창의력’,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과 국가경쟁력의 바탕을 제공함.
- 예술과 인문학은 시민사회에 창의성,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자발성과 자유를 가져다주며 민주주의를 강화함.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예술적 토대가 없는 문화산업을 비롯한 사회전체의 창의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시민적 창의성과 예술적 상상력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창의적인 도시

- 예술은 그 자체가 창의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만듦.
- 시민의 창의성이 증대되는 데 예술은 중요한 기반이 됨.
- 시민의 창의성과 예술의 창조성이 상호작용하고 융합하여 선순환되어야 함.
- 다양한 예술적 창의성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힘을 불어넣고, 예술가는 더욱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창의적 지역공동체 조성

- 경기도 모든 지역이 저마다 고유한 예술의 발상지가 되게 하고,
- 이러한 예술이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역공동체로 육성
- 이를 위해 경기도 모든 지역이 예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 문체부 주관 (법정)문화도시의 그림자

- 대전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 2019년부터 매년 5개 내외 문화도시 지정.
- 경기도 내 법정 문화도시 추진한 도시는 총 14개 도시
 - 문화도시 지정 : 부천, 수원
 - 예비문화도시 : 의정부, 군포
 - 도전했거나 진행 중인 도시 : 오산, 안양, 김포, 평택, 안성, 용인, 의왕, 화성, 가평, 연천 등
- 도시 간 지나친 경쟁 심화와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 문화 환경, 인구수가 다른 도시 간의 불공정한 문제 노출
- 붕어빵식의 획일화된(도시의 물개성화) 문화도시 양산
- 시민주도형 거버넌스와 시민력 제고라는 가치(과정중시형)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예술인과 창의인재는 소외되고, 시민운동형 (생활)문화도시에 가까움.
- 소수 문화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용역과 용병 중심의 사업 맹점
- 추상적인 시민운동의 가치에 얽매어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경쟁력과 특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노력 미흡.
- ※ 현행 문화도시 사업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창의적 동력을 도시발전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음.

3

▷ 창의적 지역공동체 <경기도형 문화도시>

- 경기도형 문화도시는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며, 관용과 배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 법정문화도시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문화·관광·예술의 혼종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혼종성의 긍정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창의적 문화자본을 축적해 가는 문화도시 지향.

▷ 경기도형 문화도시의 지향점

- 사람(Human):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및 확대, 시민참여의 폭과 깊이 확대, 프로슈머로서 시민 육성
- 산업(Industry): 예술 장르간의 융·복합을 넘어선 문화-예술-관광-축제-기술 등의 혼종.
- 공간(Space): 문화공간 인프라, 시설 활성화(연계)를 통한 도시 매력 증가, 브랜드 제고
- 제도/조직(Institution): 문화자치형 지원방식, 지역 간 시계(市界)를 넘는 협업시스템, 공공과 민간 협력강화

▷ 경기도형 문화도시 지원방식의 전환

- 광역은 최소한의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기존사업과의 연계·확대를 모색.
- 지역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광역은 지원하는 방식의 <경기도 문화도시 31>
- 심사, 평가, 인증제도보다는 정책기획과 지원활동, 공유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는 지원방식의 체계적인 뒷받침.

4

□ 정책과제 09. 경기도 문화예술 특화사업 지원

“지역 고유의 문화적 속성과 자원들을 재발견하고 재탐색하고 재해석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문화적 특징을 극대화 하여, 도시의 성장과 지속을 위한 새로운 가치동력 창출.”

5

▷ 경기도 문화의 잠재력

- 역사와 전통적 측면 : 왕릉문화, 도자문화, 정조 문화, 다산 정약용 등 실학 문화, 분단과 군사문화(미군기지)
- 공간적 측면 : 서울과 경계, 철도, 국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 경계성 문화로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 문화(백남준 미술관), 서울 못지않은 문화기반시설(공간) 보유
- 인적 측면 : 서울과 경기 예술인의 지역적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도권 예술인으로서의 인적자원 풍부 (경기의 종합혁신지수 0.66 서울에 근소한 차이로 뒤져 전국 3위)
- 생태·환경적 측면 : 한강과 지천(중랑천, 안양천, 탄천), 임진강 등 생태하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강, 경기만 권역, 지붕 없는 박물관

▷ 경기도 역사·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광역문화권 브랜드 구축

- 점점 동질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문화는 행정구역단위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단위의 문화를 넘어 광역문화권의 공동 협력사업 개발 및 지원 필요.

▷ 한강 생태문화도시 네트워크(구리/하남/여주/광주/이천/양평)

- 한강이 수도 서울의 상징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한강의 상류와 하류는 경기도 지자체를 관통하고 있음.
- 특히 한강의 상류와 하류는 보물 같은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한강이 가로지르거나 인접한 지역들이 초광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활성화와 문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6

▷ DMZ 평화문화도시 네트워크(파주,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 구축

-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통일시대를 위해, 평화의 가치를 위해 평화문화특별자치시 네트워크 구축
- DMZ는 남북의 중간지대로 남북 분단의 대치, 분단의 상징으로 물리적 장소를 넘어 평화와 포용의 시대적 상징으로 승화.
- 문화로 연결하는 평화문화거점도시로서의 경기북부 도시 간 연대와 협력 필요.
- 파주,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부대 및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 문화클러스터 구축(예술창작촌 조성 및 문화예술·기술 융합 클러스터 조성)
- DMZ 생태관광과 아픈 역사를 교훈·관광자원으로 삼아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을 경기북부의 문화·관광 특성화 사업으로 확대·발전

▷ 경기만 권역 네트워크(시흥, 평택, 안산, 화성, 김포)

- 해양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경기만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복원 사업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의 시대에 생태환경의 복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경기만 바다 살리기
- 경기만의 생산과 문화공간 기능 복원, 에코뮤지엄 추진
- 경기만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무형의 문화역사자원 개발과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7

▷ 경기도 정신문화,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

- “오늘의 고전은 어제의 혁신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의 지속적 발명일 뿐만 아니라 옛것을 적절히 취급하는 방식이다”- 찰스 랜드리.
- 도시의 기억은 역사적 경위를 남기는데 도움을 주고, 창조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사람들을 연계시키는데 도움을 줌.
- 역사자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으로 각인된 역사의 층과 유적이 그들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고, 도시의 역사를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엮어내고 활용해야 함.
- 경기도형 아카이브 디지털 센터구축(각 지역의 문화자원 아카이브- 지역의 고유한 역사, 사람, 공간 등의 아카이브를 구축. 이를 활용한 스토리개발, 콘텐츠 개발)
- ex. 왕릉문화, 도자문화, 정조 문화, 다산 정약용 등 실학 문화, 분단과 군사문화(미군기지)

▷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촉진

- 문화는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덜 민감한 분야로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계없이 지속적·정기적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현재는 분야별·장르별 문화교류사업이 다 양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정기 프로그램도 미흡
- 문화교류 활성화는 점점 이질화 되어가는 남북한 언어와 예술 등의 문화양식을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
- 경기도 국제평화문화센터 조성.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 유희공간 활용, 국제적 평화 아젠다를 제시하는 국제적 기관으로 위상 수립)
- 접경지역의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평화의 씨앗을 키워나가야 함.(국제평화포럼, 평화 예술제 등)

8

주제발표5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김기섭 (경기도 박물관장)



경기도 박물관 · 미술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김기섭 [경기도박물관]

1. 현황 분석

- 1] 전국의 공립 박물관 · 미술관
- 2] 전국의 문화재단 및 박물관 · 미술관 운영
- 3] 경기문화재단의 박물관 · 미술관 운영체계
- 4] 사례분석 _경기도박물관

2. 박물관 · 미술관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 1] 단기적 방안
- 2] 장기적 방안

1. 현황분석

1) 전국의 공립 박물관·미술관

<전국 박물관 · 미술관 현황>

시도	합계	박물관				미술관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1171	900	437	358	105	271	77	179	15
서울	178	131	34	69	28	47	7	35	5
부산	40	32	13	8	11	8	2	4	2
대구	21	17	8	6	3	4	2	0	2
인천	34	29	16	12	1	5	2	3	0
광주	26	12	5	3	4	14	4	8	2
대전	20	15	4	4	7	5	2	3	0
울산	11	11	9	1	1	0	0	0	0
세종	7	7	3	4	0	0	0	0	0
경기	182	128	54	63	11	54	12	39	3
강원	116	96	49	42	5	20	4	16	0
충북	55	44	27	12	5	11	5	6	0
충남	66	58	34	19	5	8	2	6	0
전북	60	42	29	9	4	18	7	11	0
전남	99	64	43	18	3	35	11	24	0
경북	87	76	43	22	11	11	5	5	1
경남	86	76	49	22	5	10	5	5	0
제주	83	62	17	44	1	21	7	14	0

- 총 수는 경기도가 전국 1위, 박물관 수는 서울시에 이어 2위, 미술관 수는 1위.
-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국공립이 많고, 대학박물관이 적음. 사립은 비슷함.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물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서울	9,668,465	44.37	19.44	13.55	4.86	0.52	2.59	2.59	0.52
부산	3,391,946	38.62	13.86	9.43	2.36	5.31	3.24	4.42	0.00
대구	2,418,346	38.04	18.19	7.03	1.65	3.31	4.55	3.31	0.00
인천	2,942,828	40.78	18.69	9.85	1.70	3.40	3.40	3.40	0.34
광주	1,450,062	51.03	16.55	8.28	9.65	5.52	4.83	3.45	2.76
대전	1,463,882	42.35	17.08	10.25	3.42	2.73	3.42	3.42	2.05
울산	1,136,017	41.37	16.73	9.68	0.00	2.64	4.40	4.40	3.52
세종	355,831	64.64	33.72	19.67	0.00	5.62	2.81	2.81	0.00
경기	13,427,014	42.38	21.30	9.53	4.02	1.12	3.28	2.31	0.74
강원	1,542,840	152.32	38.24	62.22	12.96	8.43	14.91	11.67	3.89
충북	1,600,837	86.20	31.23	27.49	6.87	1.87	7.50	6.87	4.37
충남	2,121,029	82.98	29.70	27.35	3.77	3.77	8.49	7.07	2.83
전북	1,804,104	99.77	34.92	23.28	9.98	7.76	9.42	7.76	6.65
전남	1,851,549	123.14	38.35	34.57	18.90	5.94	11.34	11.88	2.16
경북	2,639,422	83.35	26.14	28.79	4.17	3.03	10.23	8.71	2.27
경남	3,340,216	68.26	22.45	22.75	2.99	3.29	6.59	5.99	4.19
제주	674,635	200.11	32.61	91.90	31.13	8.89	4.45	2.96	28.16
총계	51,829,023	59.56	22.61	17.36	5.23	2.84	5.06	4.44	1.95

- 경기도의 인구수 대비 박물관수는 전국 17개 지자체중 14위, 미술관수는 9위.
- 경기도의 인구대비 박물관 · 미술관 수는 **74,568명당 1개관**.
대한민국 목표(2023년)는 39,000명당 1개관.
2016년 독일 12,000명, 덴마크 25,000명, 스웨덴 33,000명, 영국(2012) 37,000명.
⇒ 박물관 · 미술관 건립 및 운영 문제가 **지역민원화**할 가능성 있음.

<전국 박물관 보유자원>

지역	시설수	직원수	학예직원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서울	131	3,026	1,010	4,541,003	5,614,105
부산	32	361	123	383,217	495,184
대구	17	198	86	386,045	407,192
인천	29	171	82	193,317	352,911
광주	12	201	89	244,951	222,484
대전	15	87	35	433,144	168,320
울산	11	109	25	154,956	251,602
세종	7	18	14	251,831	161,771
경기	128	1,002	400	928,554	2,639,875
강원	96	588	141	541,109	2,981,727
충북	44	269	82	298,112	1,059,829
충남	58	733	256	823,218	3,085,873
전북	42	425	107	596,652	1,625,132
전남	64	578	182	517,810	2,306,048
경북	76	863	210	972,765	1,852,199
경남	76	608	216	825,643	2,241,582
제주	62	836	119	1,581,148	4,321,578
총계	900	10,073	3,177	13,673,475	29,787,412

지역	박물관	1개관 당 평균			
		직원수	학예직원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서울	131	23.10	7.71	34,664	42,856
부산	32	11.28	3.84	11,976	15,475
대구	17	11.65	5.06	22,709	23,952
인천	29	5.90	2.83	6,666	12,169
광주	12	16.75	7.42	20,413	18,540
대전	15	5.80	2.33	28,876	11,221
울산	11	9.91	2.27	14,087	22,873
세종	7	2.57	2.00	35,976	23,110
경기	128	7.83	3.13	7,254	20,624
강원	96	6.13	1.47	5,637	31,060
충북	44	6.11	1.86	6,775	24,087
충남	58	12.64	4.41	14,193	53,205
전북	42	10.12	2.55	14,206	38,694
전남	64	9.03	2.84	8,091	36,032
경북	76	11.36	2.76	12,800	24,371
경남	76	8.00	2.84	10,864	29,495
제주	62	13.48	1.92	25,502	69,703
총계	900	11.19	3.53	15,193	33,097

- 서울시에 비해 박물관 직원 수는 **-3배**, 학예직원 수는 **-2.5배**, 관람인원은 **-2배**
- 소장자료 수는 자료 특징에 따라 계산법 및 관리방식이 다르므로 판단 유보.
- 경기도의 박물관 1개관 당 직원 수는 전국 12위, 학예직원 수는 전국 6위.
- ⇒ 직원 수는 관리방식 및 **안전도**, 학예직원 수는 **학예역량** 및 **신뢰도**의 주요 요인

<박물관 운영주체별 현황>

운영주체	박물관	전 체				운영주체	박물관	1개관 당 평균			
		직원	학예인력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직원	학예인력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국립	51	3,240	1,103	4,545,354	7,443,255	국립	51	63.53	21.63	89,125	145,946
공립	386	4,044	1,106	2,339,073	12,872,262	공립	386	10.48	2.87	6,060	33,348
사립	358	2,229	674	4,491,598	9,225,396	사립	358	6.23	1.88	12,546	25,769
대학	105	560	294	2,297,450	246,499	대학	105	5.33	2.80	21,880	2,348
총계	900	10,073	3,177	13,673,475	29,787,412	총계	900	11.19	3.53	15,193	33,097

○ 국립에 비해 공립의 직원 수 -6배, 학예인력 수 -10배, 관람인원 -4.5배

⇒ 국립에 비해 **공립박물관의 신뢰도 및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

<미술관 운영주체별 현황>

운영주체	미술관	전 체				운영주체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직원	학예인력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직원	학예인력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국립	1	640	75	8,782	823,455	국립	1	640	75	8,782	823,455
공립	76	1,128	354	84,176	2,055,364	공립	76	14.84	4.66	1,108	27,044
사립	179	965	386	84,818	4,364,316	사립	179	5.39	2.16	474	24,382
대학	15	70	29	5,266	106,437	대학	15	4.67	1.93	351	7,096
총계	271	2,803	844	183,042	7,349,572	총계	271	10.34	3.11	675	27,120

<전국 미술관 보유자원>

지역	미술관	전 체				지역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직원	학예직원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직원	학예직원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서울	47	615	218	27,000	2,111,586	서울	47	13.09	4.64	574	44,927
부산	8	142	36	4,674	303,699	부산	8	17.75	4.50	584	37,962
대구	4	54	18	3,176	102,851	대구	4	13.50	4.50	794	25,713
인천	5	43	15	11,539	27,863	인천	5	8.60	3.00	2,308	5,573
광주	14	137	38	10,252	82,039	광주	14	9.79	2.71	732	5,860
대전	5	57	21	3,794	61,176	대전	5	11.40	4.20	759	12,235
울산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세종	-	-	-	-	-
경기	54	1028	233	28,307	1,471,069	경기	54	19.04	4.31	524	27,242
강원	20	90	24	14,352	540,372	강원	20	4.50	1.20	718	27,019
충북	11	57	25	4,950	220,172	충북	11	5.18	2.27	450	20,016
충남	8	35	17	8,294	178,144	충남	8	4.38	2.13	1,037	22,268
전북	18	112	40	4,880	269,786	전북	18	6.22	2.22	271	14,988
전남	35	106	53	40,198	510,793	전남	35	3.03	1.51	1,149	14,594
경북	11	58	36	6,059	259,117	경북	11	5.27	3.27	551	23,556
경남	10	121	32	8,504	137,394	경남	10	12.10	3.20	850	13,739
제주	21	148	38	7,063	1,073,511	제주	21	7.05	1.81	336	51,120
총계	271	2,803	844	183,042	7,349,572	총계	271	10.34	3.11	675	27,120

2) 전국의 문화재단 및 박물관·미술관 운영

연번	기관명	조직	인력 (명)				예산 (백만 원)		비고
			정원(현원)	무기직	기간제	계	일반	적립기금	
1	강원문화재단	2본부 2실 1위원회 13팀	57 (51)	-	7	58	24,516	21,750	
2	경기문화재단	2관 3본부 7소속기관 1단 11실 14팀	200 (195)	133	104	432	48,119	-	박물관5, 미술관2
3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3본부 7팀 3센터	77 (66)	-	2	68	42,994	14,640	
4	경북문화재단	1본부 1처 2원 2실 11팀	64 (57)	-		57	27,295	-	
5	광주문화재단	1실 3본부 1센터 11개팀	110 (102)	19	4	125	29,318	11,073	
6	대구문화재단	1실 3본부 1센터 10팀	78 (62)	-	7	69	34,423	21,822	
7	대전문화재단	2본부 1관 9팀	57 (54)	-	7	61	25,640	14,875	문학관1 운영
8	부산문화재단	1센터 1실 2본부 9팀 1TFT	67 (62)	-	6	68	39,190	34,783	
9	서울문화재단	2실 5본부 22팀 11단위 조직	232 (222)	-	30	252	59,701	-	
10	세종시문화재단	2본부 1실 13팀	74 (65)	-	14	88(65)	13,309	15,000	
11	울산문화재단	1실 1본부 4팀 1추진단	29 (25)	-	0	29(25)	14,335	2,843	
12	인천문화재단	2실 3부 2센터 3관 1단	103 (91)	-	23	114	39,423	0	문학관1, 아트플랫폼1, 공연장1 운영
13	전남문화재단	1처 5팀	31 (31)	16	6	53	24,368	23,513	
14	전북문화관광 재단	1처 3본부 1단 9팀	60 (49)	6	3	52	32,527	31,190	
15	제주문화예술 재단	1실 10팀	47 (49)	7	20	77	15,670	17,021	
16	충남문화재단	2본부 5팀	31 (29)	-	4	33	14,406	6,969	
17	충북문화재단	1처 6팀	29 (28)	-	8	36	15,926	29,660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운영>

서울시(직영): 서울역사박물관1(분관11), 한성백제박물관1(분관2), 서울공예박물관1,
서울시립미술관1(분관7)

부산시(직영): 부산시립박물관1(분관6), 부산시립미술관1(별관1)

대구시(직영): 대구문화예술회관1(분관4), 대구미술관1

인천시(직영): 인천시립박물관1(분관4)

광주시(직영): 광주역사민속박물관1(분관2), 광주시립미술관1(분관6)

대전시(직영): 대전시립박물관1(분관2), 대전시립미술관1

울산시(직영): 울산박물관1(분관2), 울산시립미술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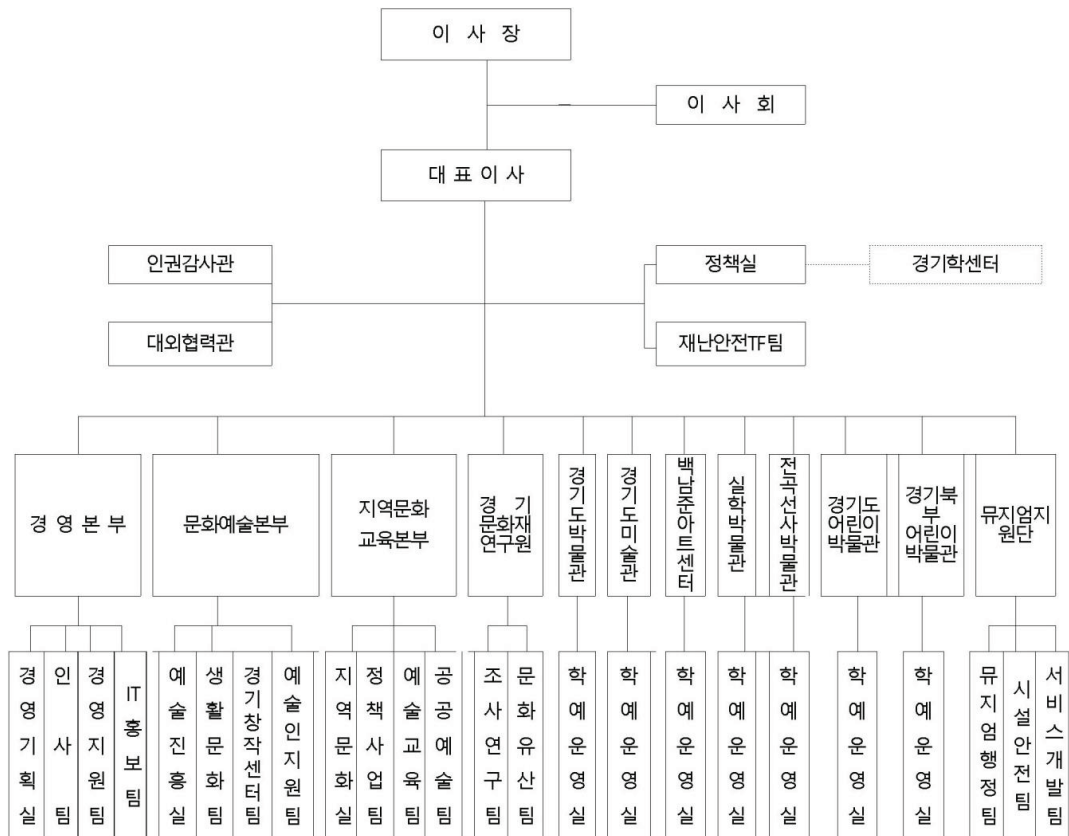
○ 문화재단의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은 경기도가 유일함.(2008년 이후)

<문화재단 및 박물관·미술관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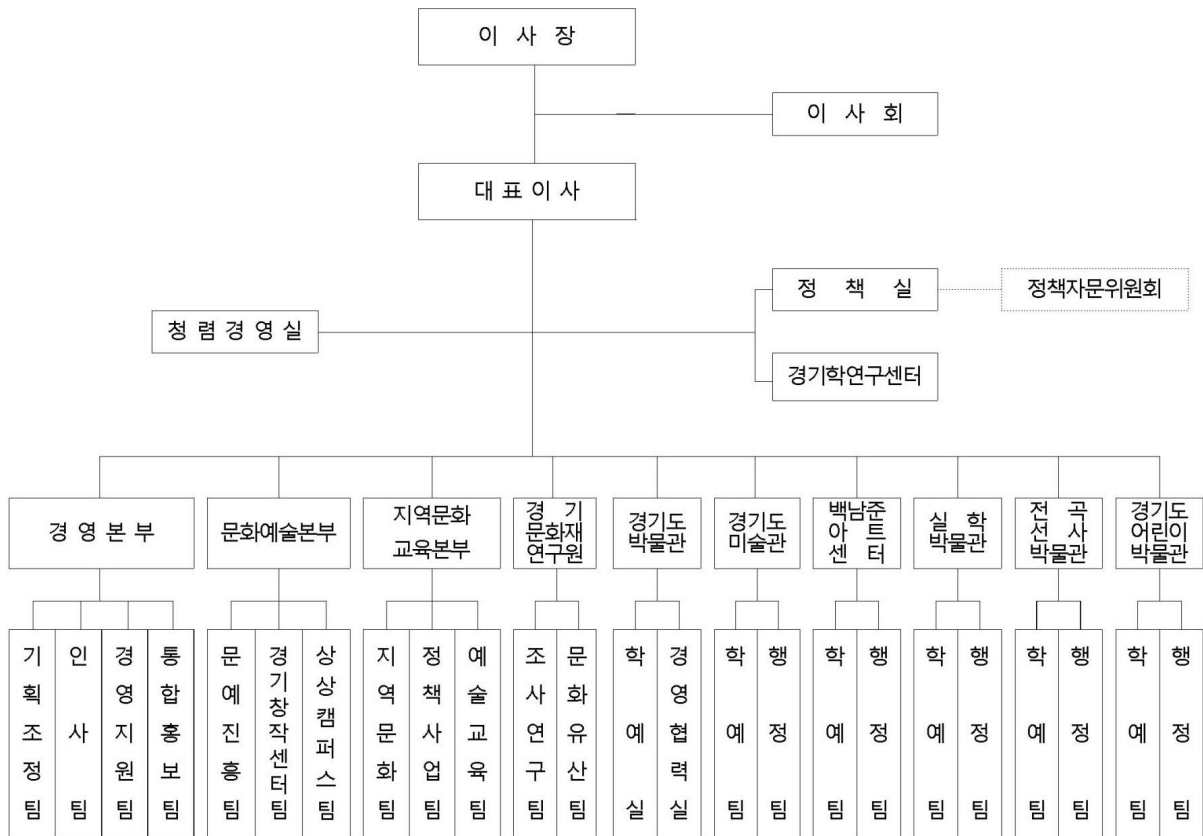
	문화재단	미술관	박물관
주요목표	감성 자극 영감 확장 정서 함양 공감능력 배양 개인의 인격과 행복	감성 자극 영감 확장 정서 함양 공감능력 배양 개인의 인격과 행복	사회성 배양 통찰력 배양 가치관 정립 사회공감대 수용 국가·사회의 변영
이념	탈이념적 진보적	탈이념적 진보적	이념적 보수적
내용구성 기준	예술성	예술성	역사성
관점	현재 보편성에 주목 시·공간 구속 적음	현재 보편성에 주목 시·공간 구속 적음	과거 특수성에 주목 시·공간 구속 많음
경험방식	직접경험 체험	직접경험 체험	간접경험 추체험
관람태도	감각적 감정적 주관적	감각적 감정적 주관적	논리적 이성적 객관적
공간·시설	유동적	고정적	고정적
사업방식	단기적 이벤트 중심	장기적 고정프로그램 중심	장기적 고정프로그램 중심
사업핵심인력	외부 협업(작가)	내외부 협업(작가·작품)	내부 협업(유물)

3) 경기문화재단의 박물관·미술관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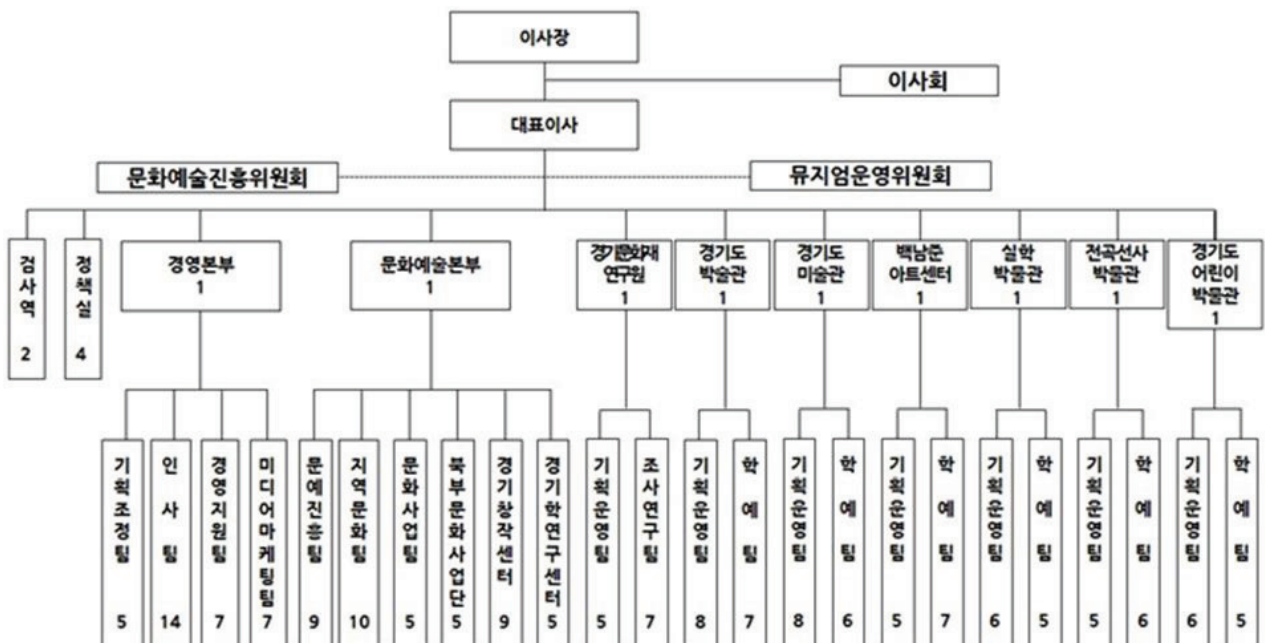
○ 2022년 5월 현재 : 2관, 1실, 3본부(2실10팀), 1원(2팀), 7관(7실), 1단(3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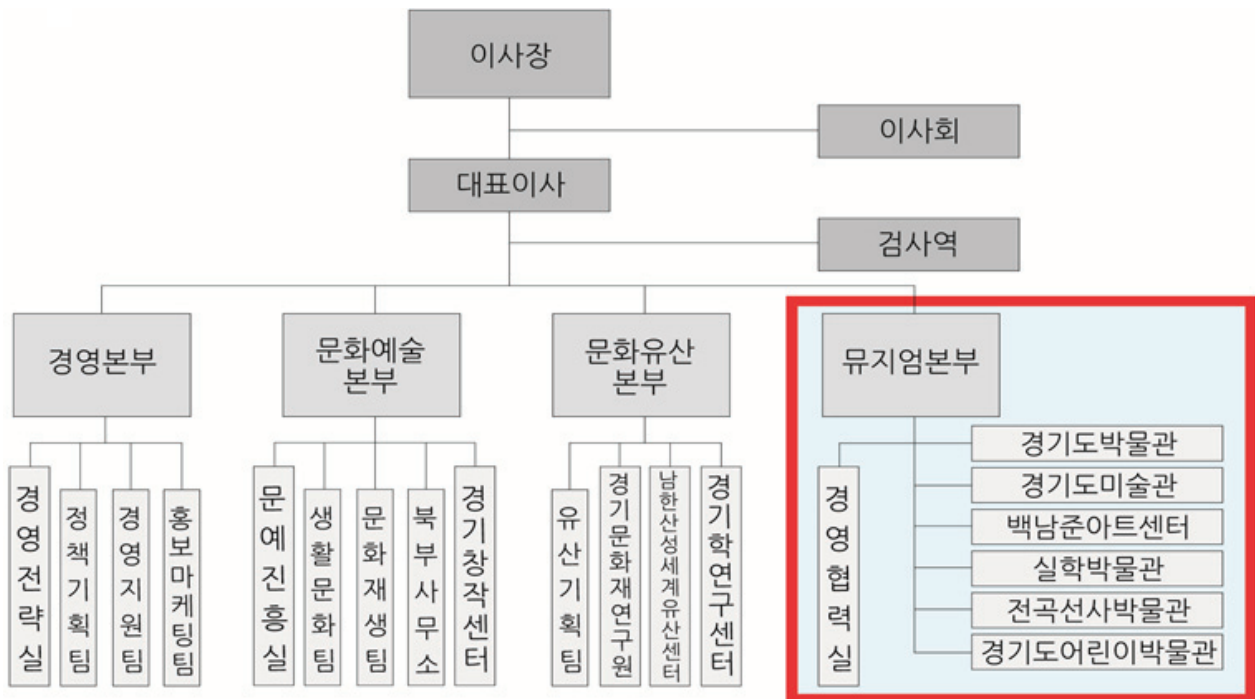
○ 2019~2021년 : 2실, 3본부(10팀), 1원(2팀), 6관(12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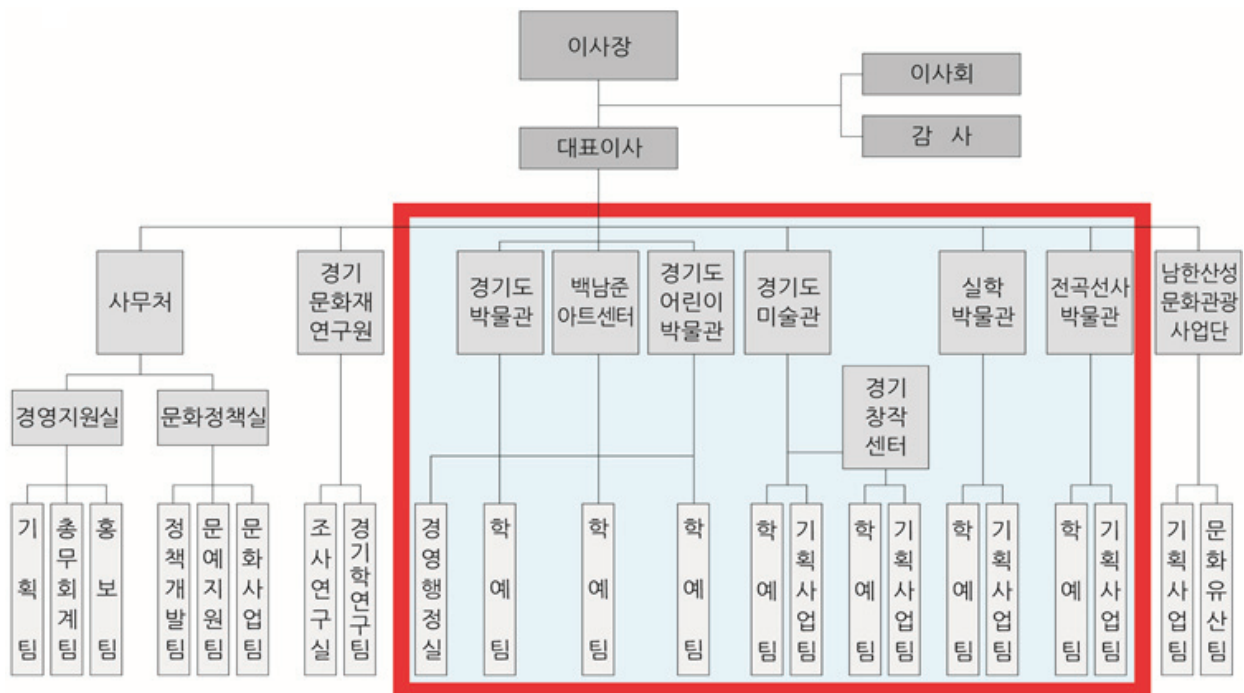
○ 2018~2019년 : 1실, 2본부(7팀1단2센터), 1원(2팀), 6관(12팀)



○ 2015~2017년 : 4본부(10실팀, 6관, 3센터, 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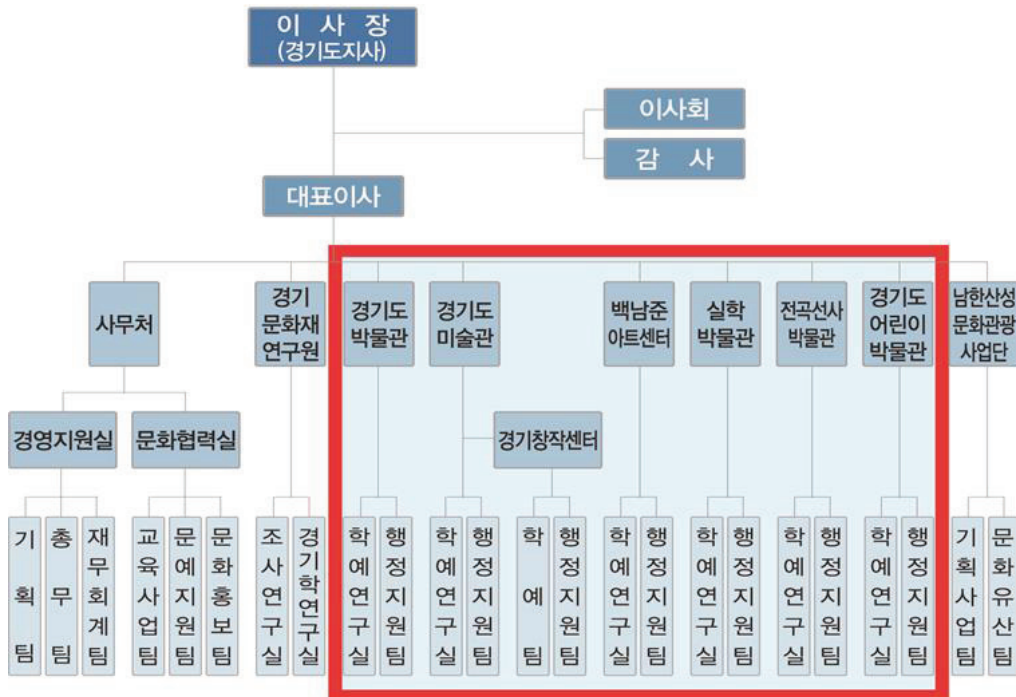


○ 2013~2014년 : 1처(2실), 1원(2팀), 6관(1센터1실11팀), 1단(2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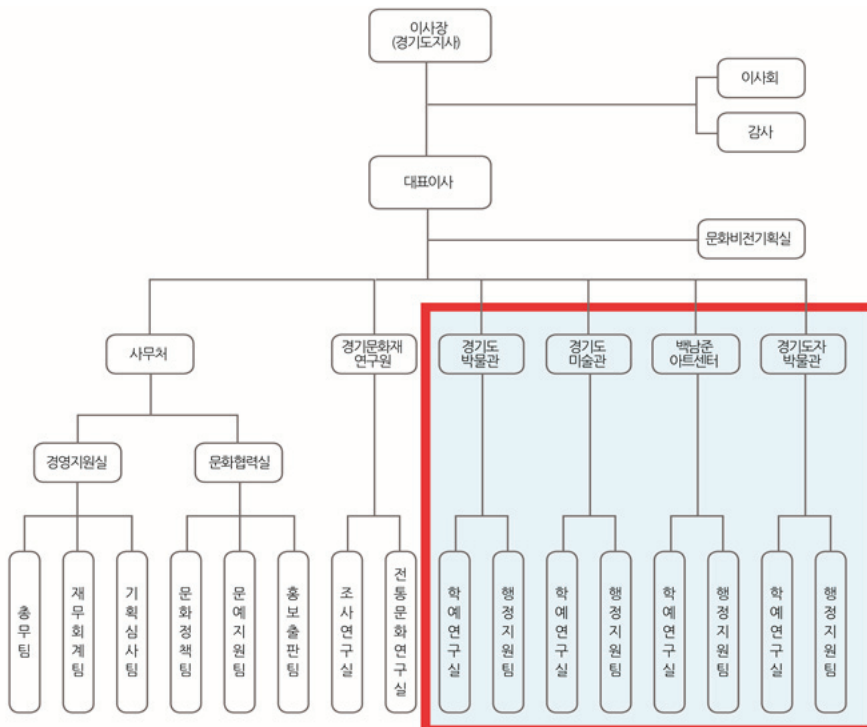


※ 위탁사업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나눔센터 운영 중

○ 2011~2013년 : 1처(2실), 1원(2실), 5관(5실7팀), 1단(2팀)



○ 2008~2010년 : 1처(2실), 1원(2실), 4관(4실4팀)



- ⇒ 예술사업부문은 지속적으로 인력 증가하고 박물관·미술관은 인력 감소 추세.
(2018~2021년은 예술사업부문과 뮤지엄운영부문 균형 추구하였으나, 이후 예술사업 위주)
- ⇒ **짚은 조직개편으로 단기사업 위주 운영 조직**이라는 이미지 형성.

□ **분석사례** (양지연, 2019.7.19. [경기도립 뮤지엄 운영의 도전과 과제], 경기문화재단 발전TF3차회의)

- 도립 뮤지엄 예산/인력의 지속적 감축(경기도박물관은 통합전의 30% 수준)
- 소장품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 핵심사업 중단 또는 약화
- 문화재단-뮤지엄, 뮤지엄 간 인력순환제로 뮤지엄 인력의 고유 전문성 약화
- 경기문화재단의 고유기능 약화(재단 사업의 50%가 뮤지엄사업)
- 옥상옥 구조로 인한 뮤지엄 행·재정상의 독립성 취약, 개별박물관의 발전 제약
- 경기도립 뮤지엄의 평판 및 경쟁력 저하
- 관람객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문화복지의 퇴보

◎ **개선방향**

- △ 뮤지엄의 기본 기능 회복이 관건(수집·소장품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
- △ 뮤지엄의 양적 확충에 선행하는 뮤지엄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 △ 도립뮤지엄에 대한 공적 지원/투자의 타당성 재정립
- △ 미래지향적 뮤지엄 역할 수행에 적합한 운영체제 도출
- ▲ 뮤지엄 통합운영 법인 사례: 스미스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
산하 19개 뮤지엄과 9개 연구소 운영: 통합행정조직(재단총관장)+개별뮤지엄조직

◎ **뮤지엄법인의 전제: 성공요소**

- △ 적정 수준의 공적 재원 지속 투입
- △ 경영/행정 자율성 보장
- △ 재원 개발 및 외부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 뮤지엄 고유 성과 기반 평가
- △ 개별 뮤지엄의 전문성·독립적 위상 확보
- △ 효과적인 통합기능 설정
- △ 참여적 의사 결정 과정

4) 사례분석_경기도박물관

□ **조직 및 인력**

<경기도박물관 인력구성> (2022.3.1., 단위:명)

계	기관장	학예연구직	문화행정직	운영직(안내)	기간제	기타
16	1	10	-	3	4	※행정·보안·시설관리 는 뮤지엄지원단 소속임. ※기간제는 뮤지엄습운 영 1, 경기도일자리재단 징검다리 사업 3

※ 뮤지엄지원단 소속 근무지 지정: 16명(문화행정직2, 운영직14(보안5·시설4·미화5))

□ **예산**

○ **사업예산** : 총9억6천9백만원

(상설전시운영(1억5천3백), 특별전시 운영(3억5천), 교육(1억5천), 소장품 보존·관리(2억2천), 학술연구 (3천), 관람객서비스(3천), *편의시설운영(3천6백, 자체재원)

○ **내부지원** : 총1억5천5백만원

(문화상품개발 및 커뮤니티공간조성(뮤지엄지원단 1천5백), 내 손안의 박물관 미술관(뮤지엄지원단 5천), 온라인 예술교육(경기창작센터 2천), 경기평화광장운영(지역문화교육본부 7천))

○ **외부재원** : 총8백만원

(보조금: 용인교육지원청(8백), ※기타 명시이월 공기관대행: 김중만 초상 보존처리(5천4백),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10억),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2억), 보조금 수원교육지원청(2천))

□ 소장품 : 58,400여점

○ 주요 소장자료(유물) 현황

(단위 : 건(점) 2022. 3. 31 기준)

소장구분 입수연유	계	주요 소장자료(유물)					기타자료
		소계	소장	학술	위탁	국가귀속	
합계	21,317(36,094)	18,769(30,303)	13,648(19,500)	4,200(9,106)	468(1,155)	453(542)	2,548(5,791)
발굴품	453(542)	453(542)	0(0)	0(0)	0(0)	453(542)	0(0)
구입품	4,462(7,154)	4,462(7,154)	4,462(7,154)	0(0)	0(0)	0(0)	0(0)
이관품	2,301(2,649)	2,252(2,586)	1,920(2,006)	332(580)	0(0)	0(0)	49(63)
기증품	10,997(18,661)	10,368(16,921)	7,256(10,318)	3,112(6,603)	0(0)	0(0)	629(1,740)
수집품	2,325(3,787)	766(1,945)	10(22)	756(1,923)	0(0)	0(0)	1,559(1,842)
기탁품	468(1,155)	468(1,155)	0(0)	0(0)	468(1,155)	0(0)	0(0)
보관품	20(1,549)	0(0)	0(0)	0(0)	0(0)	0(0)	20(1,549)
기타(미상)	291(597)	0(0)	0(0)	0(0)	0(0)	0(0)	291(597)

- * 임시보관 2,300여점 및 학습자료 20,000여점(외부-어린이박물관 보관) 제외
- * 관리대상 총 58,400여점(소장자료 36,094점, 보관자료 22,300여점)
- * 박미법상 소장품 13,648건 19,500점

○ 전시 유물 : 총 1,077건 2,764점(소장 1,014건 2,680점, 대여 63건 84점)

○ 유물 기증(1986~2022) : 총 406회, 개인 또는 문중 337명

□ 인원 : 지속적 감소 추세

<경기도박물관 학예직 인원 변동 추이> (단위 : 명)

1996	2003	2008	2013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7	20	22	14	12	8	9	12	12	9	10

<연도별 인력 및 조직구성>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7년	2019년	2022년	비고
계	51	28	27	26	18	17	18	18	단위: 명 정규직인원
관장	1	1	1	1	1	1	1	1	
행정	9	6	5	5	3	8	10	0	2019년 경영협력실 인원포함, 근무지지정제외
학예	17	21	21	20	14	8	12	10	
기능	7	0	0	0	0	0	19	16	-재단소속 후 용역 대체- -2022년 안내: 학예운영실, 그 외는 뮤지엄지원단 소속임.
청경	7	0	0	0	0	0			
기타	10	0	0	0	0	0			
									방호, 운전 등

- ※ 2009년 실학박물관, 2010년 전국선사박물관, 2010년 어린이박물관 개관
- ※ 2018년 보안, 미화, 시설, 안내직 정규직화

□ 주요 현안

○ 행정팀 부재

- 박물관 행정팀 폐지, 별도조직인 뮤지엄지원단의 행정지원
- 종합경영계획, 인사·근무·인력관리, 도의회 등 대외협력, 안내데스크 및 민원 관리, 홍보마케팅, 업무추진비, 여비지급 등 행정업무는 학예운영실 수행
- ⇒ 박물관 종합행정 및 효율적 업무분장 불가능

○ 시설운영

- 뮤지엄지원단 시설안전팀 소속 직원이 박물관 시설 관리(근무지 지정 파견방식)
- 시설운영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 이원화(시설관련사업 업무수행시 기관장 결재 불필요)
- ⇒ 문제발생시 책임 소재 불분명, 비효율적 시설 관리 및 활용

○ 인력 부족

- 2007년(경기도청 사업소) : 직원수 총 62명(행정 35, 학예 27)
- 2008년(경기문화재단 소속) : 직원수 총 48명(행정 26, 학예 22)
- 2022년(경기문화재단 소속) : 직원수 총 28명(시설운영 18, 학예 10)
- ⇒ 학예인력의 지속적 감소로 경기도박물관의 학예역량 약화 심각

○ 예산 부족

- 2007년(경기도청 사업소) : 총 84억원(인건비 32억, 사업비 23억)
- 2008년(경기문화재단 소속) : 총 56억원(인건비 20억, 사업비 29억)
- 2022년(경기문화재단 소속) : 총 36억원(인건비 19억, 사업비 9억)
- ⇒ 사업비의 지속적 감소로 경기도박물관의 사업범위 축소 심각

○ 전시프로그램 미흡

- 연간 특별전 2~3회 개최
- ⇒ 전시담당 학예사 인력 부족으로 특별전 개최 횟수 제약

구분	상설전시 면적	특별전시실 면적	특별전	연간관람객	전시학예직	전시보조원
서울역사박물관	3,909㎡	1,382㎡	연 11회	1,058,981명	9	5
한성백제박물관	2,205㎡	446㎡	연 5회	788,010명	6	6
경기도박물관	2,250㎡	500㎡	연 2회	55,170명	3	0

○ 소장품 보존관리 부실

- 등록 : 35,509여점, 기타유물 22,500여점 보관관리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입력, 사진촬영, 보험가입 등)
- ⇒ 수장공간 및 등록관리인력 부족으로 소장품 가치 활용 제약 심각
(현재 수장률 200%, 유물관리 학예사 2명, 보조인력 0명)
- ※ 2001년 기준 전담인력 16명 (학예사 6명, 보조인력 10명)
- ※ (현)서울역사박물관 전담인력 30명 (학예사 13명, 보조인력 17명)
- ※ (현)한성백제박물관 전담인력 24명 (학예사 6명, 보조인력 18명)
- ⇒ 현재 전담인력 1명으로 개관시의 보존과학업무 30% 수준 수행
- ※ 개관시의 보존처리 전담인력 평균 4명(학예사 2명, 보조인력 2명)

○ 수장공간 확보 : 공공수장고 건립 시급

- 현 경기지역 출토 국가귀속유물 관리기관 : 국립춘천박물관(강원도)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
- ⇒ 경기도의 역사정체성 관련유물을 현장에서 전시·교육할 수 없는 문제점 야기
- ※ 서울시는 3개 대형박물관(수장면적 약 2천평) 외에 대규모 통합수장고 건립중
- ⇒ 경기문화재단(뮤지엄지원단)이 공공수장고 건립계획 용역 진행중

○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네트워크사업 미성숙

- 기초작업: ‘2019년 경기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계획(안)’ [경기도박물관, 2019.5.3.]
‘경기도 공립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안)’
[경기도박물관, 2019.9.18.]
-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의 공립과 사립을 연계운영하는 거버넌스 사업 필요
- 공립박물관의 난립 및 부실운영 예방, 사립박물관의 재정자립도 및 활성화 제고
- 경기도박물관협회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협조체제 강화

2. 박물관 · 미술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1) 단기적 방안

□ 행정력 복원

- 총무: 주요업무계획, 인사·조직, 평가, 직원교육, 기록물·도서관리, 보안, 전산, 복무, 일상경비, 민원관리 등
- 시설: 건축, 전기, 기계, 조정, 정보통신, 청사방역, 차량·주차관리, 시설보안, 산업안전보건, 재난안전관리 등
- 재무: 계약, 지출, 봉급, 연말정산, 세외수입 등
- 본부와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

□ 학예역량 강화

- 전문분야를 고려한 직무 배치
- 기관별 전문가(경력직) 특별채용 : 통합공채 문제점 개선, 직급 산정 현실화
(인사 제한 등 보조장치를 통한 형평성 논란요소 제거)
- 기초전문직(학예보조원) 채용 : 유물 등록·관리 등 박물관 기본업무 상시수행
(기관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탄력적 접근 및 전문적 세부정책 수립)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시스템

2) 장기적 방안

□ 1안: 박물관재단 설립

- 문화재단: 일정기간 이벤트 및 예술공연 중심(유동성), 아티스트 연계
- 박물관재단: 상시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고정성), 학계전문가 연계

〈설립 배경 및 운영방향〉 ([경기도립 뮤지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경기연구원, 2020)

- 경기도 뮤지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박물관 핵심 기능과 역할 수행 및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 광역 공공수장고 조성, 운영 (박물관재단 본부 직영)
- 뮤지엄 기반 교육 전문인력(에듀케이터·교육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뮤지엄 정체성 구현하는 체험교육 개발 및 운영
- 뮤지엄 교육 평가제도 구축 운영
- 뮤지엄 편의시설 및 아트샵 운영 활성화 (뮤지엄 브랜드화 및 문화마케팅 추진)

□ 2안: 독립재단급 뮤지엄본부 신설

-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정원제 및 인사권 복원
- 뮤지엄본부는 조직규모 최소화(본부장은 겸직 또는 일반행정직)

종합토론

참석자 종합토론

[좌장] 제갈 현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제안서낭독

경기도 문화예술단체 대표



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정책 제안서

경기도는 천년고도이다. 경기도는 1018년 고려 현종 당시 경기라고 정명한 이후 천년이 넘어서는 동안 수도인 서울과 함께 한국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 해왔으며 대한민국의 모순과 성장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독특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어왔다. 특히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이른바 접경도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고 서울의 인구과밀과 주택문제, 산업화에 따른 생태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들이 어지럽게 개발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서른 한 개 도시들의 연합체인 경기도는 치유와 성장을 거듭해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사는 중심지역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사반세기 전인 1997년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 민간 공익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한다. 경기도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출범한 경기문화재단은 열악하기만 했던 우리 지역문화예술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마다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지역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문화 기획자의 역할, 국가정책과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통하며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 등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경기문화재단의 모델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현재 광역 17개, 기초 130여개에 이르는 문화재단의 전국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현실은 암담하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주도하는 법정 문화도시의 경쟁이 과열되며 문화의 본질적 철학을 간과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재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복지와 예술인 지원의 수요를 따르지 못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습적 지원구조의 혁신, 시민문화를 적극 지원할 교육과 문화공간의 확대도 시급한 상황이다. 도시마다 개발이 거듭되면서 토착민과 이주민을 결속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도 문화적 임무이다.

차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맞게 될 민선 8기 시대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가 지역문화정책의 핵심과제이다. 본격적으로 도래할 문화자치 시대를 맞아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문화정책 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각 도시들은 저마다의 오롯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주체로서 문화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향유에서 참여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이제는 문화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제 경기도는 유구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시민문화와 예술인의 창의성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에 경기도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꾸어 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예총, 경기민예총, 22개 기초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은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경기도 문화발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함께 가꾸는 경기도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하자.

모든 정책의 출발은 재원의 확보에서 비롯한다. 현재 경기도 일반회계의 2%에도 못 미치는 문화재정을 단기 3%, 중장기 5%까지 확대하자.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문화행정 역량을 전문화하고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문화원·예총·민예총 등 민간문화예술법인과 예술인 조합 등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

둘째. 문화자치시대의 보루인 시민 문화역량을 드높이자.

앞으로 전개될 문화자치의 시대는 시민의 문화역량과 자발적인 참여가 도시의 창조력과 지역의 활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시민 저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31개 시·군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자.

셋째.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지향하자.

예술인은 사회적 공공재임을 도민이 공감하고 정책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예술인의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인 직접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자.

넷째. 경기도를 문화가 꽃피는 메가시티로 만들자.

경기도 31개 시·군 각각의 도시들이 저마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시민과 예술인이 협력해 창의적 지역공동체가 발현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문화도시 육성정책을 수립하자. 경기도가 보유한 역사·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광역형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자. 이를 위해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자.

2022년 5월 12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경기문화재단 일동

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10대 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1)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	1. 참여와 협력으로 문화 자치 실현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경기도 지역문화자치위원회 상설 운영 2.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가꾸는 문화역량 - 지자체 문화정책 전문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3. 문화자치를 선도하는 문화재정 확보 - 경기도 문화재정 현 2% → 3% 수준으로 확충
2) 문화로 품격 있는 경기도민	4. 가깝고 쉽게 만나는 15분 생활권 시민문화공간 확충 - 민선7기 150개 → 민선8기 300개 확충 5. 내 삶을 아름답게!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실현 - 기초 31개 시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 경기도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3)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	6. 예술인은 공공재! 예술인 직접지원 및 사회적 참여 확대 - 예술인 창작수당, 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확대 - 예술인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7. 예술인이 정주하는 예술도시 조성 - 예술인 임대주택, 도심형 창작공간, 예술인 복지센터 조성 등
4) 문화로 도약하는 메가시티, 경기도	8. 경기도 문화도시 31 - 창의, 예술, 문화시민을 포용하며 창의적 지역공동체가 발현하는 경기도형 문화도시 육성 지원(문화도시 과정지원, 인증제 도입 등) 9. 경기도 문화예술 특화사업 지원 - DMZ와 한강 등 역사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광역발전계획 수립 - 경기도 정신문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브랜드 사업 추진 -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경기도 남북문화교류 촉진 10.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 공립박물관·미술관 법인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테마 박물관·미술관 확대를 통한 지역 아카이브와 콘텐츠 확대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